

문서번호	건강관리과-13637
결재일자	2015.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모자보건담당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홍성미	이춘옥	이응철	07/20 황원숙		
협 조					

## 2015년 제2차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2015. 7.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2015년 제2차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 8 조(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라 2015년 제2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I 개 요

- 일 시: 2015. 7. 15(수) 08:00~10:00
- 장 소: 성북구 보건소 8층 sb기획실
- 대 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위원 외 관련 담당자
- 회의진행: 개회, 보건소장 인사말씀, 2015년 사업안내, 2015년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안건토의, 폐회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경력	비고
위원장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	당연직
부위원장	윤여은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위촉직
위원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위촉직
위원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위촉직
위원	박경화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	위촉직
위원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당연직
간사	이응철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 과장	당연직

## II

### 회의 결과

의제	회의결과
1. 미 참여 지역아동센터 참여 유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 회의를 통한 참여 권유</li> <li>- 미참여 사유 중 하나인 학교 검진 및 치료 중복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회의 때 다시 안전 토의 하도록함.</li> </ul>
2. 보건소 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내용과 의뢰 치과의 검진 후 치료 필요 내역이 상이한 경우 지원 범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검진 후 치료 필요 내역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으나 필요 내역 전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의뢰 치과와 상의 하여 치료 내역 중 선행하여 치료하여야 할 것을 치료 하도록 함.</li> <li>- 치료비 지원 예산 범위 4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사업참여 치과에 공지(치과의사회)하도록하며, 치료내역 변경시 반드시 보건소와 상의하도록 알림.</li> <li>- 보건소에서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치과의원 및 보호자들에게 안내.</li> </ul>
3. 기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해 다른 부서와 협력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함.</li> </ul>

## III

### 후속조치사항

- 회의록 공개
- 협의 결과 사업 반영
- 참석 위촉 위원 수당지급

(회의 진행시간 2시간: 100,000원×4명 = 400,000원)

■ 회의 사진



■ 붙임 : 회의록 1 부 끝.

# 2015년 제2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록

## I. 개회 (사회 : 이춘옥 팀장님)

지난 5월20일부터 메르스로 인해서 온나라가 비상상태였습니다.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됩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서 보건소의 방문 민원인과 지역아동센터의 구강검진 참여율도 저조하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습해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2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협의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참석위원소개

위원장님인 황원숙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여은 성북구 치과의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영 성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욱 치과의사회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화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애경 성북구 보건소 치과의사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이응철 건강관리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황원숙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II. 인사말씀 [황원숙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협의체 회의를 좀더 빨리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메르스가 아직 종식은 안되었지만 1년에 3번 회의를 진행해야 되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메르스 사태를 일선에서 이끌어 나가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성북구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20일 편이상 1번 확진환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186명환자가 발생을 했고 126명이 입원 후 퇴원을 했으며, 사망자가 35명으로 20%정도의 치명율을 보여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 질환중에 이 정도로 치명율이 높았던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전염이 되지 않고 병원내 감염으로 국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지역사회로 번지지 않아서 이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초기대응을 잘했다라면 이정도까지 환자와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을 꺼란 생각이 들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고, 앞으로 좀더 역학관리라든지 대응체계를 잘 준비를 하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응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여론을 보면 보건소가 일선에서 잘 했다는 여론이 있죠. 확진환자가 발생을 하면 중앙역학조사관이 나옵니다. 중앙역학조사관이 나와서 환자에 따라서 접촉자들을 어떻게 격리해야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어떤사람을 치료 해야하는지 이러한것을 중앙역학조사관이 결정을 해서 시군구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서 밀접접촉했던사람 입원자, 자가격자라, 능동감시자 등이 우리 관

내 주민이면 연락을 해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저희는 다행이도 삼섬서울병원이 강남권이러 멀었지만 삼섬서울병원이 전국권이러 전국에서 발생했죠. 우리 성북구에도 자가 격리자가 80명 정도 발생했고 능동감시자도 관리 했습니다. 한편으로 아파트거주 자가격리자의 검체를 채취하거나 물품을 가져다 줄 때 격리자가 메르스는 아니나 다른 이상증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받도록 하는 경우에 앰블란스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호복을 입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아파트에 메르스 환자 있다고 SNS에 전파가되고 해서 보건소에서 아파트 단지에 방송을 하는 상황도 6월20일에서 25일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경우를 다 겪고도 성북구에는 확진환자가 없었고 고대 안암병원이 안심병원으로 지정 되고 고대병원에서 잘 방어를 해서 우리 성북구에는 발생을 안했습니다.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선별진료를 해서 변별을 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모든 직원들이 거의 24시간 불철주야 두달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저희 직원들에게 감사하고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대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도 메르스 때문에 좀 느려졌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도 많이 안왔을 꺼예요. 지금은 다시 열심히 이용할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철 건강관리과장님의 2015년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운영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 III. 2015년 사업 운영 현황 보고[이응철 과장님]

- 회의 자료 참고

그럼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위원장님이신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안건토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IV. 안건토의 (진행 : 황원숙 위원장)

#### (1) 미 참여 지역아동센터 참여 유도 방안

안건토의 첫 번째가 미참여지역아동센터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한 건인데요. 미참여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홍성미 담당자]

미참여 사유는 학교에서 학생구강검진을 하니까 따로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중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내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은 학교에서 따로 지원해주는게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에 안내문을 내보내면 거기에 딸란 안내문을 학생에게 보내는데 부모님들이 별로 참여 의사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28개 중에서 6개 지역아동센터가 미참여사유가 1번사항이라는 거죠?

학생구강검진에서 일단 검사 받으니 구태여 보건소 초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학교에서 하나까 보건소에 안해도 된다 그런 말인가요?

[홍성미 담당자]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다시 또 검사 안받으신다고 합니다.

학생구강검진은?

[홍성미 담당자]

학교에서 지정하는 치과에 가서 검진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지 않고 바로 연계를 해도되지 않느냐는 의견인가요?

[홍성미 담당자]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검사를 했으니깐! 따로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지 안 겠다는 이유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깨끗한 아이는 다시 검사 할 필요가 없고 치과치료 필요한 아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면 이렇게 검진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춘옥 팀장]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저소득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치료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다 중복되는 건가요?

[이춘옥 팀장]

중복되는 않을 수도 있고 중복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이게 불만인 경우에 해당 되는데요. 학교랑 구청이랑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불만인데요. 학교랑 보건소랑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만 가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학교는 학교데로 담당선생님이 치과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학년별로 어느 치과를 가서 검사를 하고 회신 받아서 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이 다 치과를 연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교육복지사업비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 건데, 그 수가 많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치과치료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20명을 넘기가 어려울거고요. 거의 한자리수나 많아야 열 몇 명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이가 치과치료가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학기초 든 해당 학교를 계속 다니고 교육복지 담당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2~3월에 그런 아이들이 발

생하여 그쪽으로 빠졌을 수도 있는데 저도 홍성미 주무주무관님께 전화를 받고 내일 회의가 있어서 치과검진을 보건소 쪽에서 인받는 분들과 얘기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아동수가 20명 ~ 30명 되는 아동중에 전체가 다 교육복지 대상은 아닐거고 한데 왜 참여를 안 하시느지는 저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치과의사회에서는 아는 것이 없으신가요. 의견있으신가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희들도 학교에서 보건교사회협의회에서 계획적으로 치과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치과들이 학교가 밀집된 지역은 참여하게 되는데 학교와 떨어져 있는 치과는 참여를 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저희들이 검진을 할 때는 누가 저소득층 아동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치과에서 검진을 할 때 치료를 위한 검진 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검진일 때도 있는데 학교 구강검진은 보편적인 검진을 하나까 빠질 수도 있고 치료를 찾는 다는 검진일 때와 많은 수를 스크리닝하는 검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 치과의사선생님이 검진하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이 사업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계속관리가 되고 있고요. 검진 후 치과 의뢰에서 돈이 너무 많이 40만원이 넘는 것은 제가 빼요. 최대한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이들이 처음 시작 할 때보다 많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에는 학교에서 해주는 구강검진사업은 일반적인 검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라고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와서 검진을 받고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검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불소도포나 교육이라던가 아이들이 잇솔질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안되 있는지 검사까지 다해서 본인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바르게 잇솔질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진을 받았다고 하면 검진을 다시 받지 않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제가 다시 봤을 때 이걸 치료를 해야되겠다고 검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설령 검사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치료를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줘서 치료를 해준다면 치료지원금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발생 할지에 따라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에 관계 되는 치료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치과 검진이 있으니 치과에서만 검진 받아라 하면 추가되는 치료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질수 없지 않습니까! 치료비가 지원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제차 검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학교에서 검진을 함으로 미참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학생구강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스크리닝하는 거죠. 거기서 걸려진 학생 몇명 정도를 치료해줄수 있는 치료비가 지원되는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에 대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는 조금더 면밀히 진료를 해서 완벽에 가깝게 치료를 4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죠! 저희 의료지원협의체에서 해주는 것이 좀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 구강검진 사업하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하고 참여의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런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면에서는 중복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은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학교 구강검진을 하면 모든아이들이 검사하고 종이에 확인도장을 받아와요. 검진 받았다는 확인을 해주는 거지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센터 아이들을 치과에 데리고 가봐서 아는데, 치료가 되는 것은 전체 아동이 아닌 교육복지 대상 50~200명중에 긴급하게 치과치료가 필요한 아동들만 치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은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쓰여져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아동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째든 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맞지 않나요? 그러면 보건소 치과 의사선생님 한분이 28개소 700명 되는 아이들은 검진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저소득 아동들을 선별을 해서 꼭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건소에 연결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학교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어렵습니다.

#### [이응철 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학교측 및 교육청측에 정확히 확인을 해서 해줄수 있는 것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춘옥 팀장]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부모님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으신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경화 신구대 치위생학과 교수]

미 참여 지역아동센터장님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중복되서 구강검진을 또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말씀하신 것이지,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검진하고 교육받고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회장님이 좀더 참여 하도록 설득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것은 이 대상자들은 다 해줄수 있는 예산은 되는지? 현재 대상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죠?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대상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경화 신구대 치위생학과 교수]

오히려 미참여 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까지 해서 모두 지원해줄수 있는 예산인지 의문입니다.

박경화 위원님 예산 부분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미 참여아동센터는 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치과의사회에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여 안하겠다고 한 센터를 참여 시켰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해주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참여율이 더 떨어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치과의사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검진은 검진을 위한 검진일 뿐이고, 보건소 사업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서는 불소도포나 예방사업, 교육 등을 해주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참여를 유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안전에 대해서는 학생구강검진과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하는 검진과 겹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스크리닝의 질을 떠나서 중복되는 것은 한번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협의하는 것은 건강관리과에서 해야할 것 같고, 학생구강검진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 중에서 정말 치료를 해야하는데 치료를 못해서 평생 구강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어떤점에서 중복이 되는지 교육지원청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점 및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에 대해 다시해서 다음회의때 안전으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학교 학생구강검진을 하는 경우에 결과를 신속하게 저희들이 낼수가 없습니다. 두달에 걸쳐서 오고 하기 때문에 검진 받는 다 하더라도 결과가 취합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9월 달에나 나온다고 하면 이 사업과 이 기간내에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서 보건소에서 이런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먼저 대상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치과에서 해달라고 요청해야지 아무 정보도 없이 검사를 받으면 혼란이 올 수 있고, 보건소 지원도 우선순위가 있고 범위가 있는데 치과에서 검진을 했는데 이 학생이 먼 치과에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때문에 학생의 편의위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건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교육청과 접점을 찾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성미 선생님과 팀장이 좀더 알아보시고요. 현재는 현 상태로 진행하도록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음번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 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내용과 의뢰 치과의 검진 후 치료 필요 내역이 예산문제 등으로 상이한 경우 지원 범위 결정

두 번째 안건으로 보건소 검진 후 치과치료 필요 내역과 의뢰 치과 검진 후 치료 내역이 상이할 경우 지원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냐 하는 건데요! 치과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죠.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아이들 구강상태를 검진을 하면 예산 범위 4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치료 내역에 적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치과에 가면 치과의사선생님은 이걸 치료를 해야 할 건데 인하고 다른 치료를 해주었을 경우 40만원을 넘어가는 부담금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리가 부담해야하는가? 그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40만원을 안 넘어갈때는 전체를 다 적어주는데 40만원이 넘는 경우는 꼭 필요한 건만 적어요. 그러면 치과의사선생님이 이걸 치료 해야 한다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박경화 신구대 치위생학과 교수]

이런 경우 의뢰서에 내용을 적어주시지는 않나요?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초과 범위가 5만원 이내거나 하면 치료할게 더있지만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쓰지만 크라운을 해야 한다면 충치 치료할 것이 여러개 있어서 나머지는 나두고 크라운을 해야할것보다 충치치료가 많아서 40만원을 넘어갈때는 이 치아 충치치료를 해주십시오 하고 써드리지는 않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애경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 되었는데요.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혼란스러운거예요.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그 결과가 치과에 통지가 되어서 가면 치료할게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아이의 경우는 치료할 치아가 너무 썩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구멍이 보일정도인데 크라운까지 해야되는 상황인가보죠, 그런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건 빠신건데 치과에서는 그냥 보건소에서 온거 데로만 봤더니 안되겠다 그 선생님이 더 많

이 치료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다하면 치료비가 오버가 되니까 어떻게 못하고 일단은 정지를 하게 된거예요. 보건소랑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협의중에 있는 안전인 것 같아요. 센터 입장에서는 40만원이 넘어가는 심각한 아동이 있을 꺼예요. 저희 아동센터도 물론 있었고요. 지금 5월부터 치료가 바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임원들하고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공유를 했는데 치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주면 좋겠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까 자부담을 하거나 센터에서 그런 것을 알면 저의가 수급자나 차상위아동의 경우 구청이나 여러 곳을 알아봐서 긴급지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치료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랑 대상자 공유가 되어서 치료비 연계를 할 수 있으면 그 사업비를 이 아이들의 치료비로 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진료한 내역하고 막상 치과에서 검진한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고애경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이해되고 알았고, 이런 부분을 회원들과 공유를 하면 이해를 하실거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결과지애다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제가 결과지애다 적어드리는 것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적게되면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은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지원대상이 안되는 아이들은 치과선생님이 그걸 받고 치료를 다 했을 경우에 그 부담금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부모님께 전화연락을 드려요, 이렇게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부담을 지고 하실건지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 [김은영 성북구지역다아동센터협회 회장]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필요하고요. 보건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 통화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전화를 받아 봤다는 심각한 상황을 저는 못 받아봐서요.

**의뢰를 받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이런 얘기는 지난 번에도 잠깐 의논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어느 정도의 상한선 인 거 같아요.

#### [홍성미 담당자]

시에서 정한 상한선입니다.

####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예전에도 그 금액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건지 의논을 한 것 같은데 40만원이 정해져있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40만원 이내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치료를 치과의사선생님이 정해서 그것만 적어서 보내시는데 의뢰를 받는 치과에서 보니 치과선생님이 적어준것보다 더 많이 치료할 것이 있으**

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는 거고, 보호자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이만큼만 적어줬는데 치과에 가니 더 많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왜 보건소에서는 이것만 치료하라고 하나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은 검진기록에 적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의사선생님이 어느정도 적지만 적은 것에서 치료 범위 하나 하나에 대한 단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40만원 선에서 보내고 의뢰받은 치과에서는 이런이런 치료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보건소에서 담당치과가 정해지면 치과의사회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지 시키겠습니다. 치료할 것은 많은데 치료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만약에 치료비가 부족해 치료를 못 하는 것은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과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주지 할 수 있도록 담당선생님들이 주지하게하고 서로 치료받는 학생들 가정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치료의 우선순위가 중요한거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여기까지 내년에는 어디까지 한다 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그것을 마무리하고 싶다 하면 자비부담을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의사선생님들도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혼란을 줄일거고 치료하다가 도저히 치과의사쌤들이 봤을 때 절실하게 긴박하다 그러면 치과내에서 봉사를 해주시든지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이번안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공지해서 검진내역을 다 적으면서 거기에 대해 40만원 범위까지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주지 시켜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검진에 나온 모든 것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담당 치과선생님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를 치료할지를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담당 선생님들도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것을 다치료 한다고 정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40만원 범위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 시켜주시면 일단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홍성미 담당자]

현재도 저희가 의뢰 할 때 아동에 대해서 안내문이 치과에 나가요 40만원까지라는 것과 변경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소에 전화하고 진료를 해달라고 기록해서 보내는데 그중에 전화 안하시고 추가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보건소에거 계획을 세워서 보내주시잖아요. 일선 치과에서 계획이 상이한 경우에 지금 40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어렵지만 40만원이내에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럼 미리 보건소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홍성미 담당자]

변경되는 것은 조금씩 수정해서 추가되는 것은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전화없이 추가로 해주셔서 문제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한사람에게 4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40만원이 상한선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하려면 이 대상들 600명에대한 40만원이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학부모님들께서 간혹 그런걸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홍성미 담당자]

왜냐하면은 부모님들도 이 사업에서 지원이 40만원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신분이 있어서 4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이거 왜 인해주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만원 범위지만 일률적으로 40만원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홍보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 (3) 기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두번째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번째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아동복지센터 외 다른 차상위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다루고있지 못하고있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어린이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는지?

[홍성미 담당자]

저희가 방문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에 대해서는 진료하고 치료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많은 수의 아동은 아니지만 의료급여1종,2종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그 외 차상위 및 일반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다 지원되지만 그 외 일반 아동은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들려오는 말로는 차상위나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행복한 아동들이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은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그런 학생들은 이런학생들은 치료를 해줘라 해도 인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학생들은 자격요건이 안되고 누가 관심있게 보지않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상당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학생들은 말없이 개원가에서 치과의사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도 파악이 되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동센터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종 기초생활 수급자 아이들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차상위라던지 일시적 차상위 아동들은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느냐는거죠?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도 관리를 하면 좋은데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이라던지 서로 상호네트워크가 이뤄져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냐?

[홍성미 담당자]

구청에서 드림스타트라고 운영이되는데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을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도 일인당 2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이 되고있고요.

20만원 지원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회장님께서서는 일선에서 보기에 일부 제외되는 아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드림스타트 같은 곳에 연결을 하면 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선 치과의사선생님들이 치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고 치료를 해줘야하는데 생활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보이면 구청에 연락하던지 홍성미 선생님께 연락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제가 알기로 드림스타트팀은 대상 치과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드림스타트의 대상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대상아동이 겹치기는 하죠.

[홍성미 담당자]

몇 명 겹치는 아동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드림스타트는 장위동 한 곳하고 서너군데 치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미 담당자]

작년보다는 올해 연계치과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실제적으로 혜택이 보기보다 적은 것 같더라고요.

[홍성미 담당자]

드림스타트는 보철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되고 충치치료까지는 지원된다고 합니다. 보철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기서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앞으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적어서 드릴텐데요. 선별하지 않고 치과선생님이나 치과위생사분들이 4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보내드린다고 해도 안 읽어 보시는 것 같아 문제고요. 제가 이제는 전부다 적어서 보내드릴꺼예요. 어떤 상황이 나올지 참 염

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틀니도 보험이 되는 상황인데, 치과에서 70세 이상은 보험 해당 사항인데 보건소 들렸다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치과에서 등록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료급여 1,2종도 아니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보건소 들렸다 오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상황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것을 다 적어 보내드리면 지원범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적어보내주시고, 예산이 올해가 2,880만원인데 시비는 2,580만원이고 구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산이 어떤가요? 이정도면 할 수 있나요?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홍성미 담당자]

더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남는 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조정이 들어가면 추가로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300만원이 늘어나서 아직은 껌찬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작업을 9월 10월에 할 건데 올해 구비를 그래도 300만원을 마련했는데 내년에는 더 마련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지원 협의체 회의를 하면 도와줘야 할 아동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고 치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예산을 확보 해야할 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정도면은 어느 정도 모자릅니까?

[홍성미 담당자]

작년에는 모자라지 않았고요. 올해는 집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안건토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VI. 폐회

[이춘옥 팀장]

지금까지 황원숙 소장님께서 안건토의 진행을 해주셨는 토의내용을 살펴보니 네트워크가 활성화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치과의원이나 보호자들에 대해 불신을 감식 시키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것도 좀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다음에는 좀더 좋은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구강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